

3월 인성교육 자료

(매주 월요일 아침 시간 활용)

3.8일

인성교육이란 ?: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1항)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인권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3.15일

오늘의 주제

헌법에 보장된 나의 인권은?

생명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거주와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사회권 등이 있음.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 참고

오늘 살펴볼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0조는 이렇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존엄성은 근본 가치에 해당하는 궁극의 목적이다. 생명권이란 것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첫 번째 조건에 불과한 것이다. 인권의 목적도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사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다. 그러므로 이것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권 목록의 앞자리를 차지할 권리다. 그래도 이런 심오한 표현을 헌법 조문에 써 넣기 시작한 것은 흐뭇한 관행이라 하겠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여러 권리의 본질을 표현하는 이념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독립한 하나의 권리로 기능한다.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권 목록이나 헌법 기본권 목록에 나열된 모든 권리에 빠짐없이 스며 있다. 그러면서 그 개개의 권리의 총화가 포섭하지 못하는 권리 개념을 모두 포괄한다. 권리 장전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면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 구제해야 한다. 이를 권리로 개념화하면 인격권이라 부를 수 있다. 그 밖에 초상권, 명예권, 생명권, 일조권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환되기도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인격권은 가장 무거운 이름이지만 가장 사소한 부분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다.

폭력 행위와 불법 집회 가담 혐의로 체포된 학생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욕설을 퍼붓고 소리

를 질러댔다. 경찰관은 규칙에 따라 자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이 쓴 안경을 강제로 회수했다. 금속으로 된 안경테를 흉기나 다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시력이 0.1도 채 되지 않는 학생은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다시 몇 번 더 소리를 지르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볼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안경을 도구 삼아 무엇인가를 볼 권리란 신체의 자유에도, 행복 추구권에도 그리고 인격권에도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구금 시설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적당한 운동이나 목욕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도 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 교도소의 징벌방은 보통 방보다 더 작는데, 그 작은 감방에 두세 명의 재소자를 한꺼번에 감금한다. 그런데 작은 징벌방이니 방과 화장실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을 리 없고, 방의 한쪽 귀퉁이에 변기가 놓여 있을 뿐이다. 이렇게 화장실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 수용자로 하여금 기본적 품위를 지키지 못한 채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당연히 인격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몬스비치, 방글라데시인 꼬미 그리고 나이지리아 출신의 포아는 모두 국내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불법체류자였다. 결국 어느 날 모두 체포되어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됐다. 그런데 보호소 경비와 소속 공무원이 비디오카메라로 그들의 행동을 촬영했다. 세 외국인은 무단 촬영에 격분하여 물을 뿌리고 휴지통을 집어 던졌다. 공무원들은 그 장면까지 찍었다. 결국 휴지통이 카메라를 이겼다. 수용인의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촬영이 필요했다는 공무원들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의 인격적 징표를 도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수용소 공무원들에게 인권 교육 수업을 명령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이렇게 늘 구석진 곳에서 침해당하는 권리를 찾아 보살펴주는 데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간혹 다른 이름의 권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이 무거운, 인생과 제도의 근원적인 문제와 맞닥뜨리기도 한다. 인간 배아 복제라는 새로운 시도가 좋은 예다. 인간의 권리를 위협하면서 새로운 경지를 무서운 속도로 파고드는 과학 기술에 대항할 유효한 수단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다. 그 권리의 포괄성은 장점이자 약점이다.

과학 기술은 상상의 세계를 곧장 현실로 만들어 버리는데, 과거에 만들어진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준 하나로 모든 것을 제재하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완성된 과학 문명의 결과는 금지하기 이전에 이미 세계 존재의 일부가 되어 버린다. 규범적 구호를 기준으로 그것을 금지하고 규제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구의 안과 밖에는 인류 외에도 수많은 생물과 환경이 존재하고, 인간의 생명은 그 모든 환경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큰 그릇을 충실히 채울 수 있는, 설득력 있고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개발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인간 존엄성은 결국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 스스로 완성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 2006. 5. 31., 차병직) 발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인사의 의미 (인사를 잘하자!)

인사란: 안부를 묻거나 공경·친애·우정의 뜻을 표시하는 예의

인사는 말이나 행동, 표정, 선물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사의 일반적인 기능은 사람들 사이의 소원, 단절을 막고 사람들 사이에 우호감을 낳게 하며, 집단 성원들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구실을 합니다. 이 밖에 다시의 사회적인 위계서열을 나타내는 지표구실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사는 민족, 시대, 계절, 시간, 조건, 계급, 신분, 종교, 직업, 연령, 성별 등에 따라 각기 구분이 있어 행동양식을 달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예를 중시하며 이에 따르는 인사법도 아침 저녁이 다르고 상봉, 이별, 문안, 안부, 경조등에 매우 까다로운 인사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사법은<<상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근래에는 서구문물의 영향으로 많이 생략, 변질되었고, 악수, 포옹과 같은 서구식 인사법도 행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인사의 방법은 말로 하는 인사, 행동으로 하는 인사, 서신으로 하는 인사, 선물로 하는 인사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각각이 독자적인 인사양식을 이루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 중 몇 가지가 한데 어울려 하나의 인사양식을 이루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사는 그것이 행하여지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양태로서 표현되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의 생활과정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인사양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말로 하는 인사:

① 처음 만났을 때의 인사말: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알고 지냈시다.’, ‘뉘덕이시오? 우리 수인사(修人事)합시다.’, ‘고명(高名, 또는 성함)은 익히 듣고(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명함을 건네주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개올습니다.’, ‘아무개라고 불러주시오.’, ‘아무개씨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반갑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2)행동으로 하는 인사:

① 입례: 옥외나 노상에서 서서 양손을 배 뒷부분에 쥐고 허리를 약간 구부려 인사하는 것인데, 이는 친숙한 존장자를 만났을 때 하는 인사법입니다.

② 읍(揖) 또는 반절: 삼국시대 이래 개화기까지 우리 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인사는 읍(揖)이었다. 허리를 굽혀 두 손을 맞잡고 [揖手] 올린 다음 상하 좌우로 조절함으로써 공경도를 높이는 인사법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사 [人事]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평소 나의 인사성에 대해 고민해봅시다.

삶의 목적이 없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목적이 없는 삶은 마치 바다 위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와 비슷합니다. 방향을 잃은 배는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을 때, 대체로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하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삶의 목적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세 학생의 답변을 들어 보면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각자 원하는 직업을 말하지만 그 직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나타나 있지 않지요? ‘왜’ 사업가가 되고 싶은지, ‘왜’ 예술가가 되고 싶은지,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업가, 예술가, 교사가 되는 것 자체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업가나 예술가 혹은 교사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며, 사람들은 그러한 목적 추구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사업가, 예술가, 교사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고귀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며, 사람들은 그러한 목적 추구에 도덕적인 고상함을 느낄 것입니다. 인간 발달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데이먼에 따르면 “삶의 고귀한 목적 추구는 평온한 시기에는 행복을 선사하고 고난의 시기에는 역경을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예컨대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포로수용소에서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할 때 생존력이 고양된다는 사실을 스스로의 체험을 바탕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